

# 익산 이틀새 10명 확진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 중저위험 시설 매일 점검... 추석연휴 공설묘지 폐쇄

익산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섰다.

정현을 시장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지역은 지난 16일 5명, 17일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이틀 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발생한 12~15번(전북 108~106번) 확진자는 전북 101번(전주 39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으며 지난 11일 방문판매 업체 직원인 전북 101번 확진자(전주 39번)와 익산 13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인화동 소재 동익 산철혼상당소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능경기대회 운영본부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통해 검사범위와 경기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소지가 익산인 20대 유학생이 전북 107번, 해외 35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터키에서 출발해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16일 완주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시는 이틀 새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대폭 강화된 수준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유희단지주점, 뷔페음식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7개 업종, 총 415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2회 추진하던 중·저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고위험시설과 동일하게 매일 실시하며 모든 시설은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방문판매업 108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타지 방문 또는 외부인 방문 자제 위반으로 확진 시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봉안당과 분묘 등 공설묘지를 전면 폐쇄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의심자와 유증상자, 해외입국자 관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항을 유지해 연휴 기간 내 의료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현을 시장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매도시 경상북도 김천을 방문해 김천시청 광장에서 군산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는 판매행사를 열어 김천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 군산시, 농수특산물 김천 직거래장터 성황

### 양 도시간 협력관계 이어가

자매도시 경상북도 김천을 방문해 김천시청 광장에서 군산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는 판매행사를 열어 김천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판로가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산물 가공업체에 도움을 주고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시민들의 알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김천시와 군산시의 우수 농수특산물 교류행사다.

김천시에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로 12회째 농산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3일에는 김천시에서 사인머스켓과 지두, 복숭아 등을 홍보 판매하고 군산시를 방문한 바 있다. 또 17일에는 군산에서 김천시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남다른 우정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차차방역을 위해 현장판매는 취소했지만 사전 주문받은 물량 선결제 완료에 대한 배부(공급) 행사는 진행해 양 도시간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상생발전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지속됐다.

판매 행사 품목은 흰찰쌀보리, 통곡물, 한과, 떡, 박대, 간장계장 등 19개 농업인 50개 품목으로, 1,681명이 3,067개의 사전주문을 받았다.

특히 군산 특산물 흰찰쌀보리는 인지도가 높은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5kg짜리 800개 이상 판매 성과가 있었다. 또, 군산에서는 우리지역 농수특산물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류행사에 김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구매자와 김천시민에게 홍보용쌀(신동진)과 보리쌀 1,700개를 증정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유공자 18명 표창장 수여

### 코로나 감안, 간소하게 진행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한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펼치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한희창)는 17일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군산시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기념식과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만 간소하게 진행했다.

표창 수여식은 훈격별로 최소인원만 모여 진행됐으며, 수상자로는 ▲국회

의원상(1) - 구암지역아동센터 최은숙, ▲군산시의장상(1) - 한국교통공사인원회군산시지회 김동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1) -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박정희,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1)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지효선, ▲군산시장상(12) - 일막원 허남선, 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미희, 나포갈빗공동체 장재영, 군산나문종합사회복지관 김유립, 군산청소년수련관 박수주, 데미들래 김옥례, 제일경락안마원 김병길, 흥남동 전은자, 내은3동 박성업, 수송동 이정래, 중앙동 오대식, 소룡동 김지혜로 총 18명이다.

그 중 사회보장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군산시 사회복지대상에는 군산나문종합사회복지관 장정열 관장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 원광대병원 나노포커스레이 '이동형 CT' 中 시장 진출 본격

### 5년간 1000억원 규모 공급계약...혁신기술 개발 성과

원광대학교병원 산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대표이사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의 이동형 CT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나노포커스레이는 효성디앤씨의 중국법인 중국 상해 효성국제무역유한공사와 최소 연 150억원/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이동형 CT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나노포커스레이는 이동형 CT를 공급하고, 중국 상해 효성국제무역유한공사는 중국내 마케팅과 영업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국산 의료용 CT가 중국에 진출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Pion 2.0이라 불리는 나노포커스레이의 이동형 CT는 이동이 가능한 CT로 방사선 선량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환자의 방사선 피폭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공지는 영상처리기술을 기반으로 우수한 영상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바일 기능을 활용, CT 장비가 직접 격리 병동으로 이동해 코로나 환자를 진단하면서 유용성을 검증받은바 있다.

의료용 CT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주요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시장이라 국내 제조기업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

려운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나노포커스레이는 대학에서 창업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20여 년간 의료용 CT를 개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해 오고 있는 혁신적 벤처중소기업이다.

윤권하 병원장(나노포커스레이 대표이사,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의료용 CT 개발에 20여 년간의 집중된 기술 개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순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의료용 CT가 중국의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환자진료에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굴절 사다리차신속대처 익산소방서, 인명 구조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처로 20m 높이 공사장에서 부상을 입은 요구조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경 목천동 소재 철길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의 다리 위로 쌓여둔 철근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쳤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령을 받은 익산소방서 인화캠프, 남중구급대, 119구조대, 굴절사다리차는 7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확인 결과 사고현장은 20m 철길 공사장 다리 위로 현장 접근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이 약 4~5km를 돌아야 하게 되어 자칫 시간이 지체될 경우 골든타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신속히 굴절사다리차를 사고현장 근처에 부서시킨 후 바스켓에 구급·구조대원을 태워 사고현장으로 올라가 요구조자 A씨(53)의 우측 발목 부상 부위를 거즈를 활용하여 지혈한 뒤 부목을 대고 응급처치 후 인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

응급처치 뒤에는 남중구급대가 요구조자를 신속히 익산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정양원 기자

### 야생진드기 주의하세요

추석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17일 밝혔다.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어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40°C 고열과 소화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